

# 드랙 퀸(Drag Queen)과 드랙 킹(Drag King) 패션에 관한 연구

정 세 희\* · 양 숙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Study on Drag Queen's and Drag King's Fashion

Sehui Chung\* · Sook-Hi Ya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4. 6. 7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investigate drag queens' and drag kings' gender identity not only as a comic and desexualized drag borrowing ex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opposite sex but also as the subject visualizing and performing 'the third sex'. It also aimed to examine formativ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al value of drag queen's and drag king's fashion and to confirm the functions of drag queen's and drag king's fashion to establish, visualize and perform the discordant sex.

For this process, research steps were as follows :

1. Understanding drag, drag queen and drag king in social, psychological context as well as in gender context. 2. Finding visualized forms which drag performance interchange with mass media 3. Analyz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drag queen's fashion and drag king's fashion. 4. Examining the aesthetical characteristics and the value of drag queen's and drag king's fashion.

The results of characteristics of drag queen's fashion could be categorized into stereotype, mimicry, kitch, inconsistency and commercialism. And the characteristics of drag king's fashion could be divided into reality, self-consciousness, mimicry, inconsistency, subversion and multiplicity.

Drag queens create plausible impressions of femininity through the use of wigs, dresses, jewelry, makeup, hormones and through "role playing". Similarly drag kings produce a plausible masculinity taking gay male aesthetic using suits, crotch stuffers, facial hair, and greased hair.

Male and female impersonation produce very different notions of gender performance for male and female embodiment. Drag kings' performance of masculinity demands authentic property of bodies so rather nonperformative, while drag queens' performance of femininity depends on more visible and theatrical fashion.

Key words : queer(퀴어), drag(드랙), drag king(드랙 킹), drag queen(드랙 퀸), 수행성(performance)

## I. 서론

20세기 이후 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성애의 확산은 성 개혁운동과 동성애 권리운동집단을 출현시켰고, 페미니즘이 성에 대한 인식을 급진화하면서, 레즈비언과 게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동성애 정체성은 큰 진전을 보았다.

이러한 성 인식 변화로 이전보다 성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의 외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으며, 패션과 의복은 억압적인 젠더 정체성을 유형화하고 구성하며 재생산하는 것으로 여겨져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뉴미디어의 다 매체는 특수한 정체성에 대한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디어에서 제시되는 의상은 대중에게 동일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스타일, 패션, 그리고 행위의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지배적인 사회화의 기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동적인 젠더 정체성, 미디어 문화와 패션의 상호관련성, 대중의 모방과 시각화 및 수행성에 관한 복잡하고 다원적인 논의를 적용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일 군(群)의 하위문화집단으로 드랙(drag)을 들 수 있다.

드랙은 인습적인 성역할이라기보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성을 의미하며, 동성애 정체성과 관련된 크로스드레싱을 일컫는다. 주로 무대에서 활동하는 동성애자 연예인이 이성의 복장을 했을 때 그들이 입은 이성적 복장을 지칭하는 말로, 1990년대 초 동성애자 문화 내에서 교차되어 사용된 위반적 의복 기호이다.

공식석상이나 사회적 주요행사를 비롯한 동성애자들의 퍼포먼스에서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드랙 퀸(drag queen)과, 여성 드랙 퍼포머인 드랙 킹(drag king)은 수행성을 특징으로 바와 클럽의 쇼나 게이 퍼레이드 등을 중심으로 등장하였고 점차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영화배우, 뮤지션, 패션모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즉 드랙 퀸과 드랙 킹은 동성애자들이 의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 뿐 아니라, 드랙을 행하는 자체가 그런 의미들을 사회적으로 유통시키는 행

위가 되기도함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드랙에 대한 연구는 1972년 Esther Newton이 전통적인 인류학 관점에서 여성으로 분장한 미국 남성의 드랙에 관하여 연구한 이래로, 드랙의 캠프, 드랙의 구체화, 게이 문화에 있어서의 캠프 유머 등<sup>1)</sup>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드랙 퀸에 관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드랙 킹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특히 한국은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단계에 머물러, 드랙에 대한 인식이 드랙 퍼포먼스가 국가 혹은 주(州)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고 드랙 패션에 대한 연구도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성 패션의 외적 특성만을 차용한 유희적이고 무성화 된 드랙의 존재뿐만 아니라, '제 3의 성'을 시각화하고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드랙 퀸과 드랙 킹의 성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찰하여 그들 패션의 미적 특성, 미적 가치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드랙을 정의하고, 드랙의 젠더 정체성을 퀴어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본질이 없는 담론적 구성물인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과 구체화 방식을 분석한다. 드랙 퍼포먼스가 시각문화의 담론 내에서 영상 미디어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시각성의 방식과, 수행성이 사회 문화적으로 갖는 의미는 미디어 관련 담론과 문화비평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드랙 킹과 드랙 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들 패션의 미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밝혔으며, 조형양식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 각종 문헌, 패션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미디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시한다.

## II. 드랙(Drag)

### 1. 드랙 (Drag) · 드랙 퀸(Drag Queen) · 드랙 킹(Drag King)

드랙(drag)은 일반적으로 동성애 정체성과 관련

된 이성(異性)의 옷 입기인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을 의미하고, 주로 무대에서 활동하는 동성 연애자 연예인이 이성의 복장을 했을 경우 그들이 입는 이성의 복장 또는 그 행위를 지칭하며 이때 성역할 대상물은 자신의 성과 상반된 것들로 혼합된다.<sup>2)</sup>

드랙 퀸(drag queen)이란 특별한 동성애자들의 행사에서 여성의 분장을 한 남성 동성애자를 뜻한다. 또는 일부 게이 바에 있는 무대에서 여성의 흉내를 내며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연예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sup>3)</sup> 특히 드랙들이 모여 벌이는 퍼포먼스 대회에서 가장 여성적이거나 연극적인 복장, 분장, 자태를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자를 드랙 퀸이라고<sup>4)</sup>, 드랙 킹(drag king)은 의식적으로 남성의 의복을 착용하고 연극적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여성을 말한다.<sup>5)</sup>

1950년대 이래로 뉴욕 할렘가에서 열린 게이 아프로 아메리칸과 히스패닉 드랙 무도회에서 성장한 보그 무브먼트(vogue movement)<sup>6)</sup>는 상류층 인사, 헐리우드 스타, 혹은 여성성, 남성성을 대표하는 유명인의 복장과 외모를 취하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고, 패션모델의 표정, 동작을 모방함으로써 이미지 생산의 조건과 이미지 생산에 포함된 구조를 보여준다.<sup>7)</sup>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보그 무브먼트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드랙 퀸들은 대중의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드랙 퍼포먼스로 Lady Bunny에 의해 1984년 시작된 뉴욕시의 연중행사인 위그스톡 페스티벌(Wigstock festival)<sup>8)</sup>이 있다. 드랙 퀸은 거리의 대중들 앞이나 바, 나이트클럽, 특별한 컨테스트의 일부 음악 무대, 퍼레이드에서 공연되는 방식으로 점차 라이브로 노래하고 연설을 하는 성숙된 예술 활동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sup>9)</sup>

드랙 퀸에 뒤이어 부수적으로 성장한 여성 드랙 퍼포머인 드랙 킹은 남성으로 분장한 사람과 구분된다. 남성으로 분장한 사람은 적어도 200년이 넘게 연극 장르에 존재해 왔으나, 드랙 킹은 최근의 현상이다. 남성으로 분장한 사람은 관객들이 그녀를 남성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의 행위 전체에 걸쳐 남성성을 진짜 같이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드랙 킹은 남성성을 패러디하여 수행하기도 하고 남성성이 갖는 연극성을 노출한다.<sup>10)</sup>

이에 드랙 퀸과 드랙 킹은 캠프(camp)<sup>11)</sup>를 통한 수행성을 특징으로 미디어를 통해 영화배우, 뮤지션, 패션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드랙 퀸과 드랙 킹은 규범적인 성역할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십 년에 걸쳐 획득한 신체적 성에 따른 성역할과 관련된 행동습관 및 신체적 태도를 포기하고, 본래의 성과 상반되는 새로운 성역할 지위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의복과 외모를 사용하는 방식을 관객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런 의미들을 사회적으로 유통시키기도 한다.

드랙은 의복과 신체에 관련된 담론을 통해 성역할의 '성향'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며, 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려는 동성애자들의 반발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개개인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해 가면서 의복 기호의 위반을 통해 성역할과 태도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벗어나 살고 있다는 일종의 과시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대 성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는 의상 파티 등으로 확산되어 굉장히 견고하던 성역할을 파괴하고 이성의 옷 입기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반응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제 드랙은 예술, 퍼포먼스, 패션의 초점이 되는 매체이다.

## 2. 드랙의 퀴어 정체성

'퀴어(queer)'는 '기묘한, 이상한'으로부터 유래하였으며<sup>12)</sup>, 몸을 매개로 한 젠더 정체성 논의의 형식을 띠는 한편, 젠더의 고착화를 피하는 모든 시도를 의문시하는 대항적·정치적·전략적 지향으로 정의된다.<sup>13)</sup>

퀴어 이론은 1980년대 에이즈 위기 이후 전례 없는 성보수주의와 도덕적 절대주의가 강화되고 동성에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전망이 제기되면서 대두된 개념으로, 동성애/이성애라는 이원적인 의미 체계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 본능이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내재적이고 고정불변의 것으로 인식하여 성을 과학적 탐구대상으로 파악하는 본질론적 관점을 거부함으로써 이성에 규범을 해체한다.

‘퀴어’는 성전환자, 복장도착자, 소년애자, 사도마 조히스트는 물론,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이성애자라 여기고 행동하면서도 기존의 이성애적 성 정체성에 따라 강요되는 성 역할이나 규범을 거부하며 능동적으로 동성애자 하위문화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성 정체성과 성적 소수집단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한다.<sup>14)</sup>

퀴어 이론에서 젠더는 강제적인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수행적’ 모델로 해석된다. Judith Butler에 의해 명명된 ‘수행성’은 젠더/정체성이 본질이 없는 담론적 구성물 혹은 ‘규제적 허구’임을 논증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다. 젠더란 반복된 몸의 양식화이고, 오랜 시간 본질의 외관과 자연스런 주체의 외관을 생산하기 위해 응집된 대단히 단단한 규제적 틀 안에서 반복된 일련의 행위들이다<sup>15)</sup>. 그것은 반복 속에서 일시적인 주체를 구성하는 행위이자, 몸이며, 담론적 규제이다. 따라서 젠더는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 개인의 젠더 정체성 역시 개인의 행위 속에서 창조된다. 젠더 정체성은 고유하거나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인용적인 젠더 규범의 실천행위를 통해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행위를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젠더가 주체의 본질과 무관한 반복적 수행이라고 정의됨으로써 ‘원형 없는 모방’은 젠더 그 자체의 속성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젠더가 수행적이라는 사실은 원본이 없는 것을 끊임없이 흉내 내고 연기하는 젠더의 모방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퀴어 이론은 젠더의 모방적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드랙을 제시한다. 드랙을 진정한 여성성에 대한 모방으로 간주하거나, 동성애를 이성애에 대한 모방으로 간주하게 되면 원본으로서의 여성성이나 남성성 및 정상적 이성애의 구축은 불가능하다. 이성애 규범이나 지배문화 속에 있는 게이나 레즈비언은 정상적 이성애자에게 파생된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조차 모방적 파생물임을 드러내는 모방본이다. 따라서 부치(butch)나 펌프(femme)<sup>17)</sup>와 같은 레즈비언과 게이는 진정한 젠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허구적 이상을 모방해

서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모든 젠더는 드랙과 같이 구조된다. 그것은 이성애적 기획과 젠더 이분법의 핵심이 바로 ‘모방’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모방의 구조에 입각해 조망하면 원본/모방본의 구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진정한 남성성이나 여성성도 불가능하게 되고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우월한 원본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sup>18)</sup>

이러한 퀴어 이론의 주요 논거는 젠더의 이원적 틀이 남성 지배와 이성애적 권력체제를 강화하는 규제적인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안정적인 젠더구조의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드랙의 몸의 정치

현대 사회에서 존재의 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개인을 초월한 의미구조로부터 더 이상 명확한 세계관이나 자아정체성을 제공받지 못하는 개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몸 그 자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아감을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9)</sup>

Jean Baudrillard에 따르면 인간과 몸의 관계를 결정하는 양식은 그 어떤 문화에서도 인간과 사물의 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는 양식을 반영한다.<sup>20)</sup> 이러한 점에서 몸은 개인이 용모, 외양을 창출해 가는 데 있어 그가 속한 사회의 몸에 대한 문화의 영향 받는 ‘문화자본’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몸에 대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몸과 관련된 모든 가치관, 미적 감각, 인지, 사고 양식 등의 총체를 일컫는다.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 및 사회계층의 문화적 조건, 경제적 조건 가운데 형성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신체에 대한 소비양식을 구축한다.

드랙 퀸과 드랙 킹은 캠프를 수행하면서 몸을 하나의 쾌락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 이들은 의복뿐만 아니라 남성 혹은 여성의 에티켓 규율과 금기에 따른 섬세하고 세련된 몸의 자세, 제스처 등의 움직임도 포함하는 몸의 표현을 중시하고 새롭게 창조한 반대 성의 행동규범의 장소이자 규범의 표현물로 변형하고 있다.

댄스 클럽이나 바의 무대에서 이성의 복장을 하고 춤추거나 노래하는 드랙은 남성미 혹은 여성미의 예

로티시즘의 모델이 되어 관객에게 관음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육체화되고 집단적인 쾌락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드랙의 퀴어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숨 가쁘게 땀을 흘리며 춤을 추거나 음악 공연을 하는 등의 퍼포먼스는 담론적인 퀴어 정체성과 커뮤니티 의식보다 그 효과가 훨씬 직접적이고 강하다.<sup>21)</sup>

이런 행사나 쇼에서 무대에 오른 드랙 퀸과 드랙 킹은 다른 게이나 레즈비언과의 연대 의식을 다지고 환상적이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순간들이 드랙 퀸과 드랙 킹을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직접적인 몸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Ⅲ. 드랙 퀸(Drag Queen)과 드랙 킹(Drag King) 패션의 미적가치와 미적 특성

드랙 퀸과 드랙 킹 행위 모두는 연극적 수행에 있어서 복수적인 애매모호함을 지니게 되는데 그들 자신의 존재와 역할 수행 행위 사이의 경계가 있다. 즉 여성으로 연기하는 드랙 퀸은 대부분 게이 남성으로 게이 남성으로서의 삶과 그들이 분장한 드랙으로서의 삶으로 이루어진 이중적인 삶을 영위하고 그 경계가 대체로 뚜렷한 반면, 남성 역할을 수행하는 드랙 킹의 경우 그들 자신의 동성애자로서의 삶과 성적 표현방식인 드랙 킹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드랙 킹 역시 그들이 수행하는 남성성이 마초(macho)<sup>22)</sup>와 같은 퀴어 남성성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의 드랙 행위 이면에 숨겨진 신체적 성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불확정하고 이중적인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드랙 퀸, 드랙 킹은 그들 자신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반대 성의 패션과 외모를 전유, 차용, 모방함으로써 성별이 사고팔고 모방하고 복사할 수 있는 물건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보는 그들의 이성에 대한 견해를 가시화한다. 따라서 드랙은 그들 자신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소비자로서 정의하며, 영화, 뮤직비디오 등의 대중 매체와 언더그라운드 게

이·레즈비언 클럽이나 바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 신체적 성과 불일치하는 외모나 행동 등으로 표현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회가 보다 폭 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1. 드랙 퀸 패션에 나타난 특성

여성 의복을 입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퍼포먼스의 일부로 무대 위에서 드랙을 수행하는 여성 역할 연기자, 잘못된 성으로 태어났고 따라서 호르몬이나 의학적 수술을 통해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믿는 성전환자, 대부분이 이성에 남성이지만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여성 의복을 착용하거나 사적인 공간에서 이성의 의복을 착용하는 크로스드레서,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여성으로 차려입는 드랙 퀸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3)</sup>

본 논문에서는 주로 마지막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드랙 퀸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각 범주 간에 혼재되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한다.

드랙 퀸들은 가장 이상적인 여성성을 창조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패션에 나타난 특성을 전형성, 모방성, 키치성, 모순성, 상업성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 1) 전형성

드랙 퀸 패션의 전형성은 여성 젠더 정체성을 수행함에 있어, 경박함, 연약함, 게으름, 순종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도상들을 전유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사교파티에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거나, 심신이 연약하여 남성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용모나 외양을 꾸미고 유지하는 것은 여성다움의 특성을 규정짓게 되며 이는 패션과 의복이 확실히 남성보다는 여성과 더욱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옷을 입고 그들 자신의 외양에 얽매이는 한, 여성 젠더 정체성은 패션과 의복에 의해 구성되어지고 표시되어지고 재현된다.<sup>24)</sup>

매력적이고 유희적인 전통적인 여성성은 대개 곱

슬금슬금하고 흘러내리는 금발머리. 가느다랗고 긴 아치형 눈썹. 웨이브 진 금발머리, 마스크라로 꼰이 지게 한 긴 속눈썹 등으로 표현된다.



<그림 1> The Grand Duchess Regina Fong London, 1991.

<그림 1>에 나타난 드랙 퀸은 망사, 레이스와 광택 있는 실크 소재로 된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눈썹을 정리하고 아이 라이너로 눈매를 강조하였으며 붉은 색으로 염색한 머리색과 일치하는 립 스틱과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 등을 통해 완벽한 여성의 외모를 완성하였다. 손톱, 머리의 붉은 색과 녹색 풍성한 스커트의 강한 색채 대비를 검은 레이스로 완화시키고 있다.

특히 의복 선택 시 색상을 조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여성의 기술은 그녀의 생동적인 신체적 외모보다 그녀의 성격과 매력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sup>25)</sup>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착용한 코르셋은 신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제한하여 육체적 노동에 부적당한 여성의 연약함, 유순함, 수동성을 강조해주고, 레이스 소재의 타이트한 소매 역시 팔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손짓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패션과 의복은 여성이 패션과 의복을 통해 여성스러움을 구성하고 표시하고 재현하는 주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녀는 우아한 포즈로 앉아 있다. 드랙은 의복,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같은 패션과 외모와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나타내는 섬세하고 세련된 몸의 자세, 제스처 등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몸의 표현 역시 중시하고 있다.

## 2) 모방성

드랙 퀸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의 스타일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며 그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하나의 이벤트 혹은

퍼포먼스가 된다. 드랙 퀸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대중뿐만 아니라 드랙 퀸 사이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므로,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게이 바나 클럽 등에서 경쟁적으로 영화배우, 가수 등 대중 스타를 모방한다.

미디어 문화는 적절한 역할 모델 이미지, 적절한 성별 행동, 적절한 스타일과 룩의 이미지, 그리고 오늘날의 개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미디어 문화는 정체성의 자원을 제공하며, 룩과 스타일과 이미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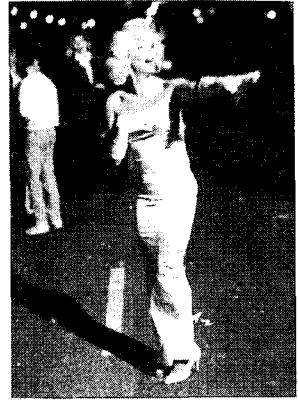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정체성의 구성요소로 행동과 실행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양식을 제공한다. 광고, 패션, 소비, 텔레비전, 미디어 문화는 끊임없이 정체성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오늘날의 정경에서 볼 수 있는 보다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이동하고 변화하는 정체성을 생산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sup>26)</sup>

현대 사회의 스타는 완전하게 이미지가 물질화 된 상품으로서의 스펙터클이다. Guy Debord에 의하면 스타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소비적 유명인사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체성이 상품의 소유와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스타일에 대한 모방은 현대사회에서 비정상적이지만 존재의 확인을 위해 준비된 주체의 반응이 된다.<sup>27)</sup>

드랙의 모방성은 자신의 이미지와 잘 맞는 스타를 모방했을 때 관객들이 쉽게 그 스타를 연상할 수 있어서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랙 퀸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가장 많이 모방 되는 스타들로 Madonna, Babara Streisand, 흑인 여성 트리오 Dolly Parton 등이 있으며, 나이 든 드랙 퀸들을 위해서는 옛날 영화배우의 이미지가 차용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배우로 Shirley MacLaine, Marlene Dietrich 등이 있다.<sup>28)</sup>

<그림 2>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할로윈 데이에 거리



<그림 2> Los Angeles, Halloween, 1991.

에서 Marilyn Monroe로 분장한 드랙 퀸의 모습으로, Monroe의 얼굴 특성을 모방한 메이크업을 하고, 어깨를 과도하게 드러내고 신축성이 있어 몸에 피트되는 소재의 이브닝 드레스는 허리와 힙을 강조하여 몸매를 드러내었으며, 목이 긴 장갑을 착용하고 스틸레토 힐을 신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치관이나 인품을 포함하는 인격체로서의 Monroe가 아닌 '섹스 심볼'의 이미지일 뿐이며, 세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모방됨으로써 일회성, 소비성을 나타내는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

드랙 퀸이 무수히 복제되는 유명인사의 이미지들 중 하나를 모방하는 이러한 방식은 개별 주체가 소멸되고 필연적인 결과로 여성성의 스타일이 갖는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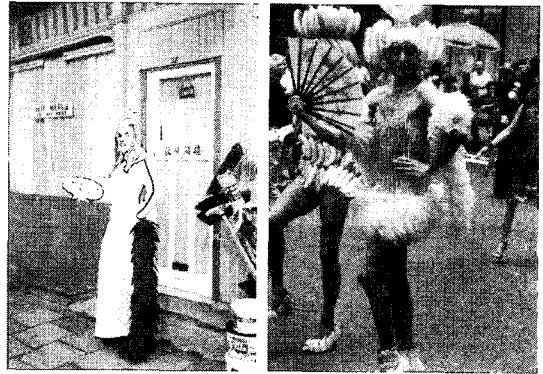
### 3) 키치(kitsch)성

키치(kitsch)는 미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훌륭한 예술품과 대조되는 하찮고, 천박하며, 조악한 미완성품으로 그 결과 윤리적 차원에서는 모조, 위조, 거짓말의 특성을 지니며, 산업적으로는 대량 생산된 값싼 상품이라는 특징을 갖는다.<sup>29)</sup>

이러한 저속한 작품, 천박한 잡동사니의 예술 쓰레기 혹은 문학 쓰레기라는 허위예술로서 대중적 취향에 부합하는 질이 낮고 값싼 예술 작품을 의미하는 키치적 특성이 드랙 패션에서는 고상한 취미의 품위 있는 여성 패션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저속한 색채와 값싼 소재 등을 사용하여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해학적이며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파리 등의 여러 도시에서는 연례행사로 게이 퍼레이드가 개최되고 있으며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삼바 축제 기간 동안 많은 드랙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드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드랙 퀸들은 유치하고 과장된 저급 취향의 의복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대중의 시선을 끌고 관객에게 재미를 준다.

<그림 3>은 팝아트의 대표작가인 Roy Lichtenstein의 회화작품을 회화하여 나타낸 드랙 퀸의 모습이다.



<그림 3> David Cabaret as Roy Lichtenstein's painting, London, 1992.

<그림 4> Gay Pride Parade, San Francisco, 2003.

다양한 오브제와 대중적 이미지를 원천으로 사용한 팝아트는 간결한 형태와 원색을 사용하여 일시적이며 순간적 환희를 느끼게 한다. 이는 심미적 균형미와 귀족적, 엘리트적인 세련미를 중시하는 종래의 순수 미술에 대한 반발이며 신체적 특성에 의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전형화된 각각의 성역할을 강요하는 기득권층에 파격적으로 도전하는 드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그림 4>는 2003년 샌프란시스코 게이 퍼레이드에 참여한 드랙 퀸들로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바나나로 된 모자, 의상, 신발과 노란 색상의 깃털 장식과 투명 아크릴 소재의 머리장식과 원피스를 착용하는 등 값싸고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였다. 이들의 길고 가늘게 그려 어색한 눈썹, 긴 인조 속눈썹, 아이새도우와 아이라인으로 강조한 눈, 립 라인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에로틱하게 보이는 입술 등은 일상적인 오브제를 전위적인 형상으로 구성하여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흥미와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고급 패션과 기존의 보수적인 패션의 조형양식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드랙 퀸 패션의 키치적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 4) 모순성

드랙 퀸은 자신을 남성으로 인정한 채 여장을 한다. 따라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여성적인 외모 이면에 가려진 남성 신체 특성을 인지하고 있다.

의복과 외모는 착용자가 다른 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므로,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것 사이의 엄격한 구분에 따라 이분된 의복과 외모에 관한 관행을 파괴한다. 왜곡된 성을 표현하는 것은 젠더와 의복에 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관찰자에게 쾌락과 유희를 전달한다.

일부 드랙 퀸은 반대 성으로 정체화하기 위한 외모 구성 요소인 의복, 액세서리 등을 포함하는 여성성 아이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신체가 가진 남성성을 강조함으로써 모순을 나타낸다.



<그림 5> Gay Pride Parade, San Francisco, 2003.

<그림 5>의 드랙 퀸들은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깨를 드러내고 스팅글, 비즈 등으로 장식한 란제리 룩 형태의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다. 좌측 드랙 퀸은 풍만한 여성의 가슴을 연출하기 위한 충전체를 노출하고 있으며, 두 명의 드랙 퀸 모두 남성성의 상징인 수염과 털이 있는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어 여성적인 의복과 대립되는 근육질의 남성적 신체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의복과 외모로 표현한 젠더와 신체적 성이 서로 모순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입은 란제리 룩과 같은 형태는 소비생활의 팽창으로 인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성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등장한 과도한 노출 패션 아이템의 하나이다. 드랙 퀸은 속옷을 겉옷화하여 여성

성 상품화의 대표적 아이템이 된 란제리 룩을 착용함으로써 고정된 성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지배문화 내에서 동성애는 이성애의 일탈적인 '타자(他者)'로 간주되기 때문에, 드랙은 진정한 여성이나 남성이 되지 못하고 여성성, 남성성 어느 한쪽도 갖추지 못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드랙 퀸은 남자답지도 여성스럽지도 못한 존재이며, 이러한 불일치성은 성과 관련된 범주를 역전시킴으로써 지각자에게 실재와 외양의 불일치라는 모순을 통해 유희를 발생시키고 있다.

### 5) 상업성

드랙 퀸 복식 문화가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고 있고, 알게 모르게 전파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가장 큰 문화적 매체로 영상물로 영화를 들 수 있다.<sup>30)</sup> 영화에서 드랙은 『Some Like It Hot(1959)』에서 Tony Curtis가 드랙하기 이전부터 이미 대중오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으나, 하위문화 자체는 보강 다큐멘터리 『Paris is burning(1991)』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어 『Crying Game(1992)』은 오스카상에 노미네이트되었고 이로 인해 이후 다수의 크로스드레싱 영화들이 줄을 이었다. 대부분의 드랙 영화는 남성의 여장을 다루고 있으며, 드랙 퀸은 유희적 방식과 실제 동성애 드랙 퀸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적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된다.

웃음을 자아내는 일탈적 크로스드레싱을 강조한 유희적 접근 방식은 『Bringing Up Baby(1938)』, 『Some Like It Hot(1959)』, 『Tootsie(1982)』, 『Mrs. Doubtfire(1993)』등을 통해 나타나며, 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인 의복이 오히려 착용자의 '실재 젠더 정체성'을 강화하여, 착용자의 의복이 착용자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젠더와 의복에 관한 고정관념을 확고히 함으로써 기존의 성에 대한 인습적 사고를 강조한다. 반면 『The Adventure of Priscilla, Queen of the Desert(1994)』, 『To Wong Foo, Thanks for Everything, Julie Newmar(1994)』등은 실제 동성애자 드랙 퀸들이 사회적 편견과 고통을 겪으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영화다.

이들 영화는 주인공이 드랙 퀸이 되기 위해 여장



을 하는 장면을 통해 눈 화장, 파우더, 속눈썹, 거들, 스타킹, 힐, 코르셋, 가슴을 만들기 위한 충전제, 립 라인, 가발 등의 순서로 카메라의 초점이 이동하면서, 드랙 도상들을 나열하고 여성성을 창조하는 방법들을 제안해주고 있다. 드랙 퀸 쇼는 동성애자 자신들의 삶의 내용이고 형식을 반영한 것이므로 드랙은 이성의 의복 착용에 의한 성적 만족을 나타내는 성도착, 성과 젠더의 불일치에 의한 일탈 등 균열되고 불일치한 성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6> RuPaul의 드랙 이전과 후의 모습

드랙 퀸의 인기가 상승하고 대중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1993년 가수 RuPaul(그림 6)은 첫 번째 드랙 팝 스타가 되었고 2년 후에 M.A.C.의 공식적인 화장품 모델이 되었다. RuPaul은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드랙 퀸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였으며, 흑인 트리오 TLC는 금발의 섹시한 RuPaul의 이미지를 모방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Evan Dando, U2, Nirvana와 Duran Duran등과 같은 대중적인 뮤지션들도 드랙을 시도했다.

이러한 드랙 퀸 이미지의 상업성은 패션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Todd Oldham, Thierry Mugler, Gianni Versace등은 그들의 패션쇼에서 남성 모델에게 여성 의상을 입혔다. 이들은 깃털, 비즈, 스팽글, 광택 있는 소재 등으로 된 과장되고 유희적인 의상, 높게 올린 헤어스타일, 얼굴을 하얗게 분장하고 립스틱 등으로 강조한 메이크업 등으로 여성성을 수행하

는 방법들을 제안해주었다.

대중적 영향력이 큰 매체들에서 드랙 퀸들의 문화가 소개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영화, 음반, 패션, 패션 광고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둬으로써 이제 역으로 드랙 퀸이 스타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스타가 유명 드랙 퀸을 모방해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다.

## 2. 드랙 킹 패션에 나타난 특성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크로스 드레싱하는데 반해 여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성의 외모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당수의 여성 동성애자들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부정하고 남녀의 역할과 권리가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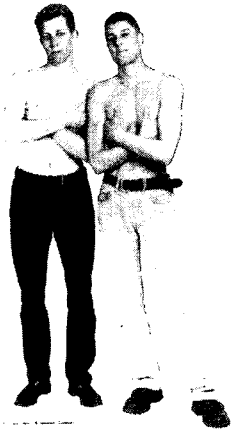
한편 여성의 드랙이 신빙성이나 진실성이 부족하고 대담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의 드랙이 더 선정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남성적인 외모 획득을 통해 남성의 자유와 특권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본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맞물려 매시니룩과 같은 남성복 스타일의 여성 패션이 대중화되고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드랙 킹 패션의 특성은 실재성, 자의식성, 모방성, 모순성, 전복성, 다중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 1) 실재성

드랙 퀸과 드랙 킹의 각각의 젠더 생산 방식은 연극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연출법은 상반된다. 드랙 킹은 메이크업과 의상보다는 드랙 킹의 신체 자체가 가진 남성다움 즉 남성적인 얼굴, 체격 등 사실주의나 신체적 특질을 강조하여 억제되고 침착한 과장된 남성성을 표현한다. 이는 드랙 퀸이 확장되고 현란하고 서로 다른 색채를 띠며 과장된 의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로 여성성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과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7>은 상반신을 노출한 두 명의 드랙 킹이다. 이들의 신체는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로 강조되는 여성 신체에 비해 밋밋한 가슴과 근육질로 되어 오히려 남성 신체와 흡사하다. 이들 드랙 킹은 짧은



<그림 7> Stafford & Jackie, Hormonal & Non-Hormonal Respectively, London 1995.

헤어스타일에 팬츠와 남작하고 남성적인 신발을 착용한 것 외에 어떠한 인위적 가장(假裝)없이 남성의 성역할 지위로 변화해간다. 특히 이 그림은 두 명의 드랙 킹이 신체 자체의 남성화를 위한 호르몬을 복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호르몬을 복용한 오른쪽 드랙 킹이 더욱 발달한 가슴과 팔 근육을 가지고 있어

서 드랙 킹의 신체 변형을 통한 남성성의 구체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꼭 맞는 플라이 프런트로 된 진즈(jeans)는 생식기, 엉덩이와 근육 조직들을 윤곽선을 드러냄으로써 남성성을 강조하여 게이 남성에게 선호되는 아이템이다. 때때로 드랙 킹은 남성의 성적 능력을 표현한 방법의 하나로 인조 남성 성기를 착용하고 딱 맞는 사이즈의 바지를 입어 버튼이 튀어나오게 하며 진의 가량이 부분을 표백하여 일부러 바라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제성을 나타내는 드랙 킹은 진짜 남성처럼 보이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으며, 꾸미지 않은 본래의 외모가 비수행적인 남성성을 창조해내고 있다. 즉 의복이나 수염 등으로 인위적으로 표현한 남성성이 아니라 드랙 킹 자체가 가진 신체적 특성과 맨 얼굴만으로도 남성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드랙은 남성들의 제스처를 모방하고 있다. 드랙 퀴이 인위적으로 여성성을 취해온 반면에 드랙 킹들은 남성성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왔다.<sup>32)</sup> 따라서 의복 기교뿐만 아니라 포즈나 인상 쓰기, 화법, 태도 등과 같은 매커니즘을 따름으로써 실제성의 퍼포먼스를 수행하고 있다.

## 2) 자의식성

드랙 킹 패션의 자의식성은 짧은 헤어스타일, 인

위적으로 만든 수염, 넥타이, 남성 구두 등으로 구성되어 여성적 특성을 포함하지 않은 남성 신사복과 동일한 스타일로 표현된다. 이는 드랙 킹의 백인, 중상류층 남성과 동화된 외모를 표출하려는 방향 지향적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수트는 남성의 성공, 남성다움, 성숙함을 가장 완

벽하게 상징하는 기표<sup>33)</sup>로 사용되고 있다.<sup>34)</sup> 즉 디자인, 디테일, 착용법 등이 동시대의 포스트모던한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안 남성성을 구체화하는 디테일은 다소 변화하였지만, 사회적 전통과 성공을 상징하는 형태와 의미는 본질적인 지속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즉 수트는 나르시시적인 남성성이 제창출되는 '남성성의 위기' 속에서 전형적인 남성성을 지속시키는 방편이 되어 왔다.<sup>35)</sup> 이에 1920년대 이미 여성 동성애자들은 남성성을 모방하고 창조하기 위해 남성의 전형적인 아이템으로 여겨져 온 수트, 넥타이, 셔츠 등을 착용하였다.<sup>36)</sup>

<그림 8>은 수트, 넥타이, 와이셔츠 차림에 낮은 굽의 신발을 신은 드랙 킹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은 짧은 헤어스타일과 콧수염 등이 완벽한 남성의 외모를 창조해내고 있다. 쥘리엔, 쥘리엔 홀더, 시가, 외알 안경 등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 동성애들이 성적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해온 표식이며 남성을 패러디하는 도구로 자주 쓰인다.<sup>37)</sup> 쥘리엔을 잡고 인상을 쓴 모습과 마치 자위를 하는 듯한 포즈는 드랙 킹들이 남성성의 외적 형태뿐 아니라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성행위 역시 취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드랙 킹은 매니시룩과 같은 이성애 여성의 남성복 차림이 남성복 안에 숨겨진 여성의 신체 특히 다리부분의 노출로 이어져 성적 매력을 강조한다는 에로티시즘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드랙 킹은 젠더 정체성과 성적 특성의 중심부에



<그림 8> Gianni & Hans, London, 1996.

남성적인 신체와 외모 특성을 뚝으로써, 자아를 추구하기 위하여 패션을 인식할 뿐 아니라 활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자의식적인 남성성을 수행하고 있다.

3) 모방성

드랙 킹의 모방성은 남성성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과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마초 게이 미학을 따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전자는 자신의 이미지와 유사한 스타를 모방하여 관객에게 연상 작용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랙 퀸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게이 남성들이 스스로가 진짜 남성임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난 과시적인 남성성의 표현방식인 마초 게이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캠프 가장 무도회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패러디하는 것이다.

1950년대 급증한 젊은이 문화와 미디어의 영향력은 James Dean, Marlon Brando 같은 스타를 등장시켜 가죽과 진을 신체를 드러내는 흰 티셔츠와 함께 남성을 성적 특징화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정착시켰다. Richard Martin은 '남성 반항아, James Dean과 Marlon Brando가 대중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의복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38)</sup>고 하였다. 또한 이는 곱슬곱슬한 머리를 이마에 착 붙이고 수트를 입고 땀에 젖은 모습으로 수많은 미디어 관객들을 광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섹시함을 대표하는 Elvis Presley로 이어졌다. Elvis Presley는 여성이 남성 응시의 대상이 되어 흥미를 자극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준다고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남성도 여성들의 의해 바라보여지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의의 도출했다.

<그림 9>은 Elvis Presley로 분장한 드랙 킹들의 모습이다. 곱슬거리는 앞머리를 살짝 내린 짧은 헤어 스타일을 하고 있고 러플달린 셔츠와 짙고 화려한 색상의 셔츠에 수트를 각각 입고 있으며 구레나룻과 턱수염 등을 표현하여 남성성을 모방하고 있다.

마초 게이는 1970년대에 이성애 남성들이 긴 머리와 밝은 색상의 의상 등을 수용하면서 나약한 남성이 등장하게 되고 남성성의 이상(理想)에 대한 자의식적인 차이와 심지어 외관적인 차이도 침식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게이 남성들이 강인하고 거친 남성성을 강조하는 대안문화를 창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등장하였다.

마초 게이는 남성적인 실외활동, 체육관, 일터 등에서 영감을 얻어 패션을 연출하는데, 구레나룻, 염소수염, 턱수염을 붙이거나 그리고, 격자무늬의 벌목꾼 셔츠, 작업용 부츠, T-셔츠를 입었으며, 그들

의 근육과 몸매를 강조하였다. 즉, 남자다움과 땀, 노동 등을 연상시키는 남성의 독점으로 여겨지는 데님, 격자무늬, 가죽 옷 등을 착용하면서, 전통적으로 '남성답고', '진짜 남성다운 일'이라고 정의되어 온 분야인, 서부 카우보이, 벌목꾼, 어부, 배선공, 트럭운전수, 전화배선공, 건축업자, 군인 모터사이클리스트, 운동선수, 경찰 등과 연관된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이들의 제복들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 게이 문화의 남성성을 반영하고 있다.<sup>39)</sup> 특히 6명으로 이루어진 게이 밴드인 Village People은 멤버 각각이 카우보이, 건설노동자, 선원, 바이커, 인디언 추장, 경찰 등을 모방한 마초 게이 패션 스타일을 선보였고 이는 드랙 킹들의 패션 도상이 되고 있다.



<그림 9> Elvis Herselvis & Elvis Emulator, San Francisco, 1997.



<그림 10> San Diego Drag King Club

<그림 10>은 샌디에고의 드랙 킹 클럽 회원들의

사진으로 드랙 킹들은 마초 게이 남성들이 남성다움을 과장하는 외모를 창조해 내기 위해 데님, 격자무늬 셔츠, 오버롤, 비즈니스 슈트 중절모, 카우보이 모자 등을 착용하고, 염소수염이나 구레나룻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문신과 발달된 근육도 강하고 거친 남성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4) 모순성

드랙 킹 패션의 모순성은 두꺼운 눈썹, 콧수염 등으로 의도적으로 가장하고 과장된 특성을 지님으로써 젠더의 불일치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드랙 킹 퍼포먼스에서 가슴을 노출시켜 남성적인 의복 안에 숨겨진 여성 신체를 노출시키는 것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젠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모순을 강조한다. 이는 퍼포먼스의 마지막 부분에 옷을 벗어 여성적인 외모 안에 숨겨 놓았던 남성성을 노출시키는 전통적인 드랙 퀸 스트립쇼의 패러디라고 볼 수 있다. 드랙 킹의 모순성은 지배적 남성성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남성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성을 강화함으로써 남성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1>은 용맹함과 힘으로 상징되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투우사 복장을 한 드랙 퀸으로 중세기풍의 굵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투우사 재킷, 짧은 헤어스타일과, 인위적으로 그려 넣은 구레나룻, 콧수염, 염



<그림 11> Trash, Studio, New York City, 1991.



<그림 12> Rubber Ball, Hammersmith Palais, London, October, 1995.

소수염 등은 남성성을 연출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반면 풀어헤친 재킷 사이로 풍만한 가슴을 드러내어 여성적인 신체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는 근육이 발달하고 페니스를 가지고 있는 남성 신체를 모방하기 위한 보조 장치를 파티 웨어를 착용한 드랙 킹을 보여주고 있다. 메이크업을 하고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를 한 여성적인 외모는 의복 안에 감추어男性的 신체를 창조하는 이러한 인조물과 대립되어 드랙 킹의 모순적인 성과 젠더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5) 전복성

드랙 킹은 의복을 통해 성과 젠더에 대한 주류 지배질서에 저항하려는 새로운 형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도화되지 않은 문화, 또는 주류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 탈 중심화하면서 주변부의 그늘에서 재영역화하는 문화의 형태들에 주목하면서 그곳에서 저항과 투쟁을 찾아내어 문화적 실천의 양태들을 찾고자 하므로 하위문화<sup>40)</sup>적 전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동성애자란 이제 도착이나 변태가 아니라 흑인이거나 유대인 같은 인종적인 차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 분류되는 소수집단의 하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에 동성애자 운동은 소수집단의 권리라는 독자적인 이해를 가정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을 이해관계의 동일성에 기반한 저항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담론적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드랙 킹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수용된 좋은 취향과 세련됨에 대해 저항하는 이러한 하위문화가 표출된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반항' 중에서 폭력적, 파괴적, 반사회적 특성을 띠고 있어서 남성성과 맥을 같이 하는 스킨헤드, 갱스터 스타일을 전유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과 폭력을 공통 논제로 하는 이러한 스타일들은 드랙 킹들이 사회의 소수집단으로서 겪는 소외감과 좌절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림 13>은 부츠, 뿔뿔 짧게 깎은 머리 스타일로 건장함, 남성성과 노동계급임을 상징하는 스킨헤드 스타일<sup>41)</sup>을 전유한 드랙 킹이다.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수시로 잘라 없애는 것으로 기존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림 13> Bridge Markland, Not a NeoNazi, Berlin, 1997.

<그림 14> EastVillage Homeboy, New York, 1997.

머리를 이용한 아름다움이 아닌 스킨헤드만의 저항과 반항의 미를 창조한다. 이러한 스킨헤드 스타일은 백인이라는 사실에 우월감을 갖고 추구된 특별하고 집단적이며 남성적인 자의식의 표현으로, 공격성을 찬양하는 남성성으로 정의된다.

반면 일부 드랙 킹은 동성에 담론의 인종적 차별과 소외에 반발하여 갱스터 랩퍼를 퍼포먼스함으로써 저항성을 나타낸다. 갱스터 랩은 소수자인 그들에 대한 점증하는 억압과 신분 상승 기회의 봉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

<그림 14>의 드랙 킹들은 흑인 계토의 실업, 범죄, 마약, 도시 폭력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갱스터들의 대표적 패션인 검은색이나 짙은 색 의복과, 가죽재킷, 군화 스타일의 부츠, 험령한 팬츠, 셉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적 하위문화 스타일을 전유하는 드랙 킹은 현실 도피와 부정부주의적 태도로 동성애자가 처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노여움, 분노, 반란, 파괴를 패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도덕적 억압을 전복하고 있다.

### 6) 다중성

드랙 킹 중에서 일부는 남성의 이면에 여성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옷을 벗는 행위를 연출한다. 이들은 드랙 퀸들이 퍼포먼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발을 벗고, 옷의 일부를 벗음으로써 실제로 남성임을 밝히는 것과 반대로 무대 위에 올라 콧수염을 달고 인조 남성 성기인 딜도(dildo)를 주머니에 넣는 방식 등으로 드랙 킹을 연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진정한 여성다움 자체는 남성다움의 표면 바로 아래에 놓여져 있어서 약간의 재치있는 행위만으로 획득될 수 있는 개념을 패러디 한 것이다.

또한 일부 드랙 킹들은 터프한 드랙 킹에서 섹시한 스트리퍼로 이동해가는 다중적 코드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드랙 킹 행위는 다양한 범주의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젠더를 유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5>는 드랙 킹 Dred Gerestant<sup>42)</sup>의 퍼포먼스 장면이다. 2003년 국내 '제 5회 여성영화제'에서 마련한 '아시아 여성영화인의 밤' 행사의 초청되어 공연을 한 적이 있는 드랙 킹으로 밀어버린 머리, 인위적으로 그려 넣은 구레나룻과 가죽 재킷, 험령한 바지로 연출한 마초주의를 전파하는 흑인 래퍼를 풍



<그림 15> Dred Gerestant

자하여 남성적인 신화를 깨고, 후에 옷을 벗음으로써 늘씬하고 여성적인 육체를 노출함으로써 성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동적인 드랙 킹의 젠더 표현은 패리디, 모방, 전유를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과 드랙 킹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하는 젠더

드랙은 동성애자 문화 내에서 교차되어 사용된 위의 다중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드랙 퀸과 드랙 킹 패션에 나타난 구체적인 미적가치, 심리적 가치, 신체적 특성, 소재 특성, 디자인, 장신구 등의 특성과 모방이 되는 도상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드랙 퀸과 드랙 킹 패션의 특성

		드랙 퀸		드랙 킹
나 즈	미적 가치	전형성	키치성 모순성	진실성, 자의식성, 모방성, 모순성, 전복성, 다중성
	심리적 가치	여성적인 패션과 남성적인 신체의 불일치를 강조하여 유희적 특성을 지님		남성적인 신체와 제스처를 모방하여 남성성의 자연스러움을 추구
오 즈	신체적 특성	날씬한 다리, 잘록한 허리	근육, 힘줄, 목젓 등 남성적 특성이 드러남	남성적 목젓, 근육질 몸매, 염소수염, 구레나룻, 문신, 발달된 남성적 근육
	소재	망사, 레이스, 광택 있는 실크소재	스팽글, 비즈장식, 광택소재, 신축성 소재, 포피, 깃털장식	진, 데님, 가죽
	디자인	노출의 극대화 피티드 실루엣으로 신체 강조		비즈니스 수트, 격자무늬 혹은 평직 셔츠, 오버롤, 플라이 프런트 리바이스 진
	장신구	가발, 하이힐		인조 남성 성기(덜도), 인조 근육, 중절모, 카우보이 모자
	기타	눈썹정리, 립스틱 바르기, 짙은 메이크업하기, 인조 눈썹, 인조 손톱		위커 부츠, 경비원 모자, 큰 버클이 달린 두꺼운 가죽 벨트, 타이
도상		Marlene Dietrich, Shirley MacLaine, Marilyn Monroe, Madonna, Babara Streisand, Dolly Parton, RuPal		James Dean, Marlon Brando, Elvis Presley, 마츠 게이 클론(서부 카우보이, 별목꾼, 어부, 배선공, 트럭운전수, 전화배선공, 건축업자, 군인 모터사이클리스트, 운동선수, 경찰), Village People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성 패션의 외적 특성만을 차용하여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젠더 정체성을 나타내는 드랙 퀸과 드랙 킹 패션의 미적 특성, 미적 가치를 밝힘으로써 생물학적 성과 불일치하는 젠더를 시각화하고 수행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패션 기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0세기 이후 동성애 해방운동과 성인식 변화로 동성애 정체성은 큰 진전을 보았고, 개인의 외양을 구성하는 패션과 의복은 억압적인 젠더 정체성을 유형화하고 구성하며 재생산하는 지배적인 사회화의 기제가 되었다.

반적 의복 기호이며, 신체의 성과 무관한 젠더로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상대 성의 의상뿐만 아니라 몸의 자세, 제스처 등의 움직임도 포함하는 몸의 표현을 끊임없이 흉내 내고 연기하는 행위를 통해 본질과 무관한 반복적 수행으로 구성된다. 즉, 고유하거나 본래적인 젠더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인용적인 젠더 규범의 실천행위를 통해 젠더가 일시적으로 또 잠정적으로 구성된다는 젠더의 모방적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드랙 퀸과 드랙 킹은 바와 클럽의 쇼나 게이 퍼레이드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확대되어 영화배우, 뮤지션, 패션모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남성성', '여성성'을 모방하고 재생산하

는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다.

드랙 퀸과 드랙 킹의 각각의 젠더 생산 방식은 연극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연출법은 상반된다. 드랙 퀸이 확장되고 현란하고 서로 다른 색채를 띠는 반면, 드랙 킹은 억제되고 침착한 과장된 남성성을 나타내는 게이 남성인 마초의 외모 양상을 모방하고 있다. 또한 드랙 퀸이 과장된 의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로 여성성을 과장하여 표현하므로 여성적인 외모를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드랙 킹은 메이크업과 의상 보다는 드랙 킹의 신체 자체가 가진 남성다움 즉 남성적인 얼굴, 체격 등을 강조한다.

드랙 퀸 패션의 특성은 전통적인 여성성의 도상들을 전유하는 전형성, 여성 유명 인사나 대중 스타의 스타일을 모방함으로써 여성성의 스타일이 갖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모방성, 유치하고 과장된 저급 취향의 의복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남녀로 이분하여 성역할을 강요하는 기득권층에 파격적으로 도전하는 키치성, 반대 성으로 정체화하기 위해 여성성을 구성하는 아이템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신체의 남성적 특성이 오히려 강조되어 지각자에게 실제와 외양의 불일치라는 모순을 통해 유머를 발생시키는 모순성, 대중매체를 통해 드랙 퀸 문화를 소개하여 드랙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상업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드랙 킹 패션의 특성은 드랙 킹이 가진 남성적인 얼굴, 체격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강조하여 억제되고 침착한 과장된 남성성을 표현하는 실재성, 백인, 중상류층 남성과 동화된 외모를 표출하려는 상향 지향적 욕망을 반영하는 자의식성, 남성성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혹은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마초 게이 미학을 따르는 모방성, 두꺼운 눈썹, 콧수염 등 의도적으로 가장하고 과장된 특성을 지냄으로써 젠더의 불일치성을 강조하는 모순성, 현실 도피와 무정부주의적 태도로 동성애자가 처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노여움, 분노, 반란, 파괴를 스킨헤드, 갱스터 스타일 등의 저항적 하위문화 스타일을 전유함으로써 표현하는 전복성, 티프한 드랙 킹에서 섹시한 스트리퍼로 이동해가는 다중적 코드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수행하여 다양한 범주의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젠더를 유희하

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타자'로서의 하위집단 패션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 구성 집단의 일원으로서 드랙을 바라보고, 드랙 퀸과 드랙 킹 패션의 기능과 다원적 표현성과 다의적 가치를 밝힘으로써 학제적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패션으로 재현된 시각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드랙 퍼포먼스 참여가 수행성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성·미디어·패션의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있다.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의 드랙 퀸과 드랙 킹의 도상이 패션 아이템으로 차용 혹은 전용됨으로써 현대 패션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 패션의 영감 출처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Bergman, D. (1993). *Camp grounds: Style and homo-sexuality*.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Moe Meyer (1994). *The politics and poetics of camp*. New York: Routledge; 간호섭 (2000). Drag Queen 服飾에 관한 研究. 패션비즈니스학회지, 4(2)참고.
- 2) Garber, M. (1993). *Vested interests*. London: Penguin, pp. 151-161.
- 3) 최 안드레아 (1997).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서울 : 도서출판 아미, p. 63.
- 4) 주진숙 외 (1999). 호모 PUNK 異般. 서울: 큰사랍, p. 399.
- 5) Halberstam, J. (1998). *Female masculinity*. Durhame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 232.
- 6) 보그 무브먼트(vogue movement): 1990년대 초 미국 흑인과 히스패닉 게이 사회에서 시작된 춤 스타일로 거만하고 과장된 스타일로 상류층이나 패션모델의 표정, 동작을 흉내내는 것이다.
- 7) Edwards, T. (1997). *Erotics & Politics gay male sexuality*. New York: Routledge, p. 109.
- 8) 위그스톡 페스티벌(Wigstock festival) : 1984년 이래로 뉴욕에서 개최된 노동절 드랙 페스티벌. 본래 뉴욕 이스트 빌리지의 톰킨스 스퀘어 공원(Tompkins Square Park)에서 모여 웨스트 빌리지로 행진하며 참가자 다수는 화려하게 의복을 차려입고 집합적 퍼포먼스를 벌인다.
- 9) Wice, N., Daly, S. (1995). *Alt.culture*. New York: Harper Perennial, p. 68.

- 10) Halberstam, J. (1998). 앞의 책, p. 232.
- 11) 캠프(camp):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과장된 남성적 또는 여성적 행위를 연기하기, 특히 과장된 여성적 행위를 하는 남성을 일컫는다.
- 12) 퀴어는 그로테스크한, 왜곡된, 카니발적이고 컬트적인 그리고 상식과 선입견을 벗어난 비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인 미적 감수성을 포괄한다.
- 13) 고충환, "퀴어와 캠프, 위반의 정치학", 월간미술 2001년 8월, 자료출처: [http://www.wolganmisool.com/200108/special\\_08.htm](http://www.wolganmisool.com/200108/special_08.htm)
- 14) 서동진 (1996).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 하랴. 서울: 문예마당. p. 83.
- 15)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p. 30.
- 16) Butler, J. (1991). *Imitation and gender insubordination*, Diana Fuss. Inside/Out. New York: Routledge. p. 2.
- 17) 부치(Butch)는 섹스나 젠더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남성이나 마초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는 사람 또는 이러한 것들에 기반하여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 지니는 하위정체성을 말하고, 팜므(Femme)는 섹스나 젠더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여성적으로 옷을 입고 행동하는 사람 또는 이러한 것에 기반하여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지니는 하위 정체성을 말한다.
- 18) Butler, J.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p. 125.
- 19) Shilling, C. (1993). 임인숙 역(1999). 몸의 사회학. 서울: 나남. p. 348.
- 20) Baudrillard, J. (1970). 이상률 역 (1991). 소비사회 그 신화의 구도. 서울: 문예출판사, p. 190.
- 21) 조성배 (2003).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8.
- 22) 마초(macho): 일반적으로 현대 남성 젠더 역할에 비해 보다 더 남성답다고 여겨지는 전통적 남성 젠더 역할에 일치됨을 함축하는 용어다.
- 23) Brubach, H. *op. cit.*, p.xviii.
- 24) Barnard, M.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115.
- 25) Morris, I. (1964). *The world of the shining prince*. Harmondsworth: Penguin. p. 216.
- 26) Kellner, D. (1995). 김수정·경중희 역 (1997). 미디어 문화. 서울: 새물결, pp. 460-466.
- 27) 유선영 (2000). 호모-이미지-플래티코스:TV 스타의 문화징후. 서울: 언론과 사회, p. 27.
- 28) 간호섭 (2000). Drag Queen 服飾에 관한 研究. 패션비즈니스학회지, 4(2), p. 77.
- 29) 이영욱 (1992). 키퀴/진실/우리문화. 문학과 사회, 19.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1224.
- 30) 박정순, 김훈순 (1997). 대중매체와 성의 질서(페미니스트 젠더 이론). 서울: 나남, pp. 26-27.
- 31) 이정후, 양숙희 (1997).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에 관한 연구. 복식, 35, p. 118.
- 32) Del, L. V., Halberstam, J. (1999). *The drag king book*. London: Serpent's Tail, p. 62.
- 33) Saussure는 기호를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뉘었다. 추상적 관념을 기의라 한다면 의미체를 기표라 한다.(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p. 18-39)
- 34) Hollander, A. (1994). *Sex and suits*. New York: Knopf, p. 3.
- 35) 정세희 (2000).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Gender) 정체성-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6.
- 36) Wilson, Elizabeth (1985). *Adorned in dreams*. London: Virago Press, p. 148.
- 37) 이정후, 양숙희 (1997). 앞의 책, p. 119.
- 38) Schreier, S. (1998). *Hollywood dressed & undressed*. New York: Rizzoli, p. 88.
- 39) Edwards, T. *op. cit.*, pp. 95-96.
- 40) 하위문화라는 용어는 1940년대에 새로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위의, 종속의 또는 지하의' 뜻으로, 주류로부터 특권을 박탈당한 사람들과 주변부 사람들의 한 집단을 의미하고 그 집단의 정체성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한다.
- 41) Hebdige, D. (1979).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Methuen, p. 114.
- 42) 드레드 게레스탄트(Dred Gerestant)는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의미에서 '젠더 일루저니스트(Gender-illusionist)'로도 평가받는데, 고정된 성 역할을 파괴하기 위한 젠더 벤딩(gender bending) 워크숍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